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10,

애가 3: 52-66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0회 애가 3:52-66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애가 3장 52절부터 66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또 다른 간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희망을 포함하는 불만에 기반한 개인 기도 탄식입니다. 이 마지막 간증은 부상당한 치유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맡은 멘토인 주 강사가 자신의 경험을 회중의 경험과 느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3장 초반에는 슬픔에 기초한 탄식의 기도를 발견했는데, 여기서는 탄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강의 시작 부분에 나온 증언과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증언은 3인치 참고 자료를 보고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인치 언급이 포함된 직접적인 기도 형식을 취합니다. 멘토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셔서 여기에 재현된 순수한 기도 탄식입니다.

이는 제3자 보고서로 제시되지 않으며 멘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추가 예를 제공하지만 개회 간증에서 언급된 것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이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동 경험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간증은 불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문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는 나의 원수들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시작 부분에 불만의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진노에 대해 언급한 이전 간증에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간증의 제목이었고, 1장과 2장에서처럼 진노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첫 간증에서 멘토는 전쟁 후 유다에 남아 있던 회중들과 유대 회중들에 대해 공감하며 “나도 한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탄식을 올려야 하겠다”고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공동 상황에서도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회중의 역할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끝에서 그는 “한 번은 개인적인 원수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적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가야 할 길입니다. 따라서 부상당한 치료자는 현재 부상당한 회중을 돕기 위해 자신에게 가해진 또 다른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이 시의 앞부분인 34절에서 36절에서 직접적으로 공동의 불만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직업, 전후 점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1절에서 강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쟁 후 외국 군대가 보낸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경험과 우리가 애도, 슬픔, 죄책감, 비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 가지 궤적, 경로 또는 궤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회중의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아마도 회중의 신경을 더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회중이 그들의 불만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로 탄식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도록 격려하는 좋은 메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회중이 움직이고 기도로 응답하도록 하는 세 가지 경로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 탄식 기도에는 복잡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두 개의 애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또는 그 중 에피소드가 애도로 표현되고, 동일한 적들에 대한 별도의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 애도는 52절부터 54절에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셨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그러나 같은 적들로부터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59절부터 66절에는 새로운 나쁜 상황을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식 기도에 포함된 이전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지난번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의적으로 응답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여기 상황은 이렇지만 해설자들은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어디서 끝나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8년의 끝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 59년에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이 간증에서 찾을 수 있는 실제 애도 기도가 시작된다고 굳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RSV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 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5년에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56년에 당신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57, 내가 불렀을 때 네가 다가왔다고, 첫 회. 그러나 58세에 당신은 내 일을 맡아 주셨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며, 나에게 행해진 부당한 일을 보시고, 내 일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RSV의 관점에서 볼 때 58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V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NIV 58에서는 완료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완벽한 동사 대신 내 인생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58장은 그 상황의 결론과 하나님께서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 같습니다. 그것은 58년의 끝 부분에 오고, 그 다음에는 59년에 그 상황의 합병증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좋아요, 여기에 첫눈에 또 다른 어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문맥을 통해 일부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9절에 보면 동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악의와 모든 계락을 보셨습니다.

글쎄, 그것은 이미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동사 see의 힘입니다. 그러나 63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앓든지 일어나든지 내가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사용된 방식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보고 보시고, 신이시여,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십시오.

단지 관찰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사 하나에는 꽤 다양한 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 '듣다'에서도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56절에는 그 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귀를 닫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 뭔가를 했고, 그것에 대해 뭔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63절에서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모략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유형의 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뭔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관심은 쏠렸어요. 보시다시피, 이 단어들은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차 사건의 증언은 유죄였고, 2차 사건의 증언은 고충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전반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커뮤니티의 죄책감과 불만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멘토의 의도는 자신의 죄책감과 불만을 회중과 동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적절한 기도를 통해 이러한 두 현상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불만의 일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나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근본적인 신탁의 이사야 10장을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앓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히 유다가 그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나 적은 너무 멀리 갔다. 적이 너무 멀리 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필요하게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일하면서 슬픔과 죄의식, 불만에 대한 예를 여러분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상황에서 함께합니다.

환자가 나에게 말한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환자의 방에 들어갔다. 휠체어를 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양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또 다른 질병을 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여동생에게 전화하면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그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의 의료 보고서에서 그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나요? 아, 그래,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대부분 저녁에 온다. 나는 그들이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놀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저녁마다 그를 방문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그녀는 멕시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백인 앵글로 가족이 이 멕시코 여성과 결혼한 아들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멕시코인이라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사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수치심과 편견을 조금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환자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당신의 아내가 오면 당신이 그녀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의 친가족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멕시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에도 죄책감이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나 애도에서나 양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까닭 없이 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에 대하여 52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새처럼 사냥했습니다. 새로운 RSV의 이 구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련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52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새처럼 사냥했습니다. 새처럼 나를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정자의 눈을 통과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NIV에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나를 사냥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의 원수가 된 자들이 새처럼 나를 사냥하였나이다. 애도에서 흔히 그렇듯이 은유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냥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박해 속에서 그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나를 산채로 구렁이에 던져놓고 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닫혔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다 고 말했다. 그리고 55세, 나는 구렁이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물웅덩이인 물웅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성서의 어떤 경우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마른 구렁이에 던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8장에서 예레미야가 진흙 구렁이에 던져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글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여기서 비유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유형의 은유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감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전에 좁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찬장 속에 갇힌 듯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유롭고 발전하며 좀 더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넓은 곳으로 끌려나오고 싶었다. 그리고 이것은 변형입니다. 이 물탱크는 그 상황의 변형입니다.

53절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NIV도 매우 유사합니다.

단지 동사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히브리어 명사가 단수라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번역은 그 단수 동사를 집합적인 동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이 따르는 본문을 이해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고 매우 그럴듯하며 아마도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돌입니다. 동물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수조 위에 뚜껑을 씌워놓은 것인데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돌 꼭대기가 있는 이 저수조에 갇혀 있으면 감금된 느낌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은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저수지가 아니었습니다.

진흙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양의 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는 절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너무 큼니다.

그의 적들로부터의 이러한 박해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삶에 절망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그에게 가져오셨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감금 속에서 적들에게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간청을 들었습니다.

내 간청은 무엇이었나요? 도와 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때 가까이 오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에게 남은 모든 일, 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신이 이전에 애도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듣고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가까이 다가왔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비디오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문자 그대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성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전에 어느 정도 언급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때때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12편을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애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습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이 탈취를 당하고 궁핍한 이들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음하라, 나는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한 곳에 두겠다. 그리고 시편 35편과 3절에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애도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3절, 창과 단창을 뽑아 나를 쫓는 자들을 치소서. 나를 위해 반격해 보세요.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말하라.

그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이 다른 시편에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은 1절부터 7절까지 애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어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대 밖에서는 성전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우는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동일한 상황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긍정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왔습니다. 이전에 애도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자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형벌하고, 벌하고,
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당신이 가까이 오셨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임재입니다.

그래서 56절, 당신은 나의 송사를 들어주셨고, 나의 생명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났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개입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완료 시제보다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NIV에는 또
다른 변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원인이 아니라 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법정 언어이기 때문에 매우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재판관, 증거에 따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편을 드는 재판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러 오시는 재판관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구절을
잠깐 읽어보면 당신은 내가 잘못된 것을 본 것입니다.

현재로 나아가서 나의 원인을 판단하고, 나의 원인과 그 판단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판단하십시오. 판사님, 당신의 판결에 도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내 원인 NIV에서도 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전 구절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른 단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이 아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옳은 것이 당신 편이라고 느낄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58절에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유적인 단어이거나 인간의 말하는 방식을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redemption)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적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 25장의 대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25절에 너희 친족 중에 누구든지 곤경에 처하여 재산을 팔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친족이 판 것을 무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가족 구성원, 가장 가까운 친척, 개입할 수단이나 힘이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닥친 모든 종류의 위기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상황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구속이란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끝나도록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롯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서술형으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친족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아스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이 두 과부를 구속하고 그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속권을 당신이 취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책임을 맡아 롯과 결혼하고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매우 인간적인 상황, 매우 인간 사회학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야훼 삼촌이 개입하여 상황을 구속하고 이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이 비유가 신학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 탈출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라는 긴 시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허락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의 특징을 지닌 신학적 용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특별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2서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보니,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41장이 그 장이고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그리고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은 두 번째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탈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가 두 번째 출애굽에서 다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인 구속(redemption)과 속량(redemption)에 대한 많은 신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구원을 위한 단어로 신약성서에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구약성서의 저음이 아주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배경 때문에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59절, 59절로 돌아가면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보셨으며, 저의 원인을 판단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모든 악의와 나에 대한 모든 음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적이지만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소 다릅니다. 이전에는 외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물리적인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의 문제, 적대적인 말, 덜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멘토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행해진 잘못은 악의로 정의됩니다. 59절에서는 6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다시 음모를 꾸미고 61절에서는 저를 향한 그들의 조롱과 음모를 다시 꾸미고 63절에서는 저를 속삭이고 중얼거리고 조롱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에는 명백한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처럼 사냥당하고, 사냥당하고, 그런 외적인 방식으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더 교활합니다. 멘토 앞에서든 뒤에서든 언어 학대, 조롱 음모, 조롱 노래, 언어 학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로는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것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여기서 강조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60년과 61년에 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악의와 음모, 그리고 62년에 하루 종일 나를 공격하는 자들의 속삭임과 중얼거림이 하루 종일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앓든 일어나든 나는 그들의 조롱 노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조롱하는 노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증언과 두 번째 증언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노래, 말하자면, 가없는 당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성서에는 조롱하는 노래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미가서 4절에 나오는데,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한 가지 방식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그들이 너를 비방하는 노래를 부르며 통곡하며 통곡하며 우리가 망하였도다 하리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낄낄거리며 통곡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잘못된 동일시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소매를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노래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매우 불쾌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너무 불공평해요 ; 그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4년부터 66년까지 일련의 간구를 얻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 주소서. 그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진노로 그들을 쫓아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그리고 당신은 '그건 그다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용서하지 않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의 용서 방식은 아닌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후서 1장 6절을 생각하니, 너희를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위를 주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이시니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동정심에서 가혹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한 플레이가 이루어지도록 호소하는 구약의 진리를 매우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65절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괴로움을 주십시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덮개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NIV는 그들의 마음에 장막을 씌웠다. 이는 그들을 후회하기보다는 완고하고 반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오시려는 제안에 응답하지 않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일종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66절, 진노하여 저희를 쫓아 하나님 하늘 아래에서 멸하시리이다. 애가에 나오는 분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피해자를 대신해서요.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인데, 이 경우 죄인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불만의 상황에서, 이전에는 죄책감의 맥락에서 그것은 죄인인 시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의 첫 간증에서는 멘토가 자신의 죄로 인해 경험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에 대한 마지막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듯이, 불만은 아마도 회중이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유형의 기도일 것입니다.

회중은 그러한 기도에 참여할 준비가 가장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불만이 문을 열어줍니다. 불평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쪽 편을 택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불만 사항이 있다고 올바르게 판단되면 이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라. 이 기도를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신이시여.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적합한 유형의 기도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그들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간증은 역할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부상당한 치료자가 오래된 상처에 남긴 두 개의 흉터에 대한 두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중의 열린 상처를 치료하는 데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간증의 또 다른 특징은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결말,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결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부적인 박해는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멘토의 말을 듣는 곳에서나 등 뒤에서 언어적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언급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가까이 다가왔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중에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제시됩니다. 나의 경험, 아, 그것이 당신의 경험이라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 마. 괜찮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결말에는 특별한 중요성이 있으며 기도가 두 에피소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회중의 여느 기도와 마찬가지로 개방형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종결, 신학적 종결, 적어도 영적인 종결, 즉 성전 선지자나 제사장이 중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가까이 다가왔다. 무서워 마.

그래서 계속 나아가서 회중에 참여하고, 그들 자신의 기도에 참여하라는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5장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4장 전체를 공부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말하는 것을 더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애가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Leslie Allen입니다. 10회 애가 3:52-66입니다.